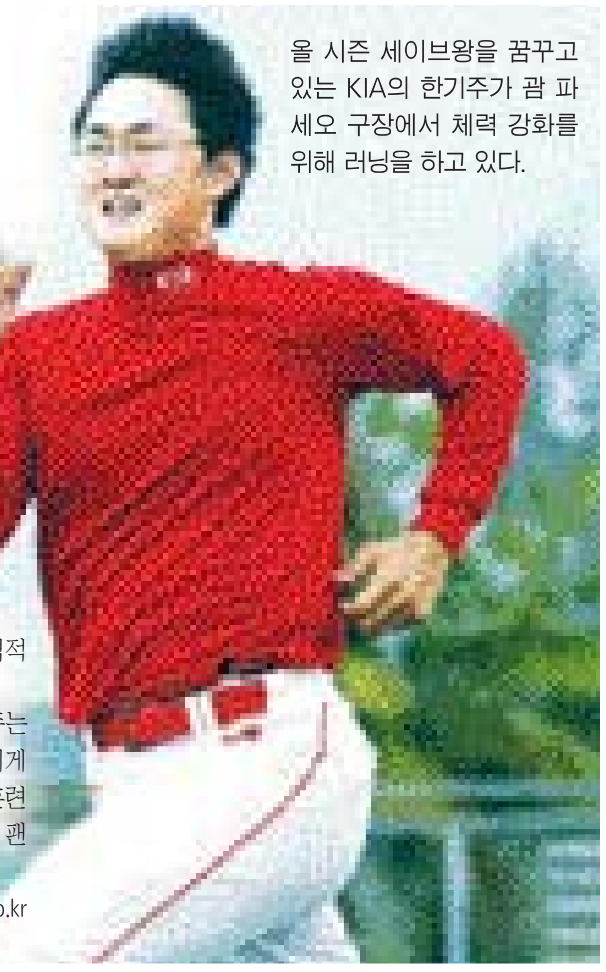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KIA 전훈캠프 괌에선…

한기주의 꿈 '세이브왕'

새 구질 개발…40S 달성 포부
러닝·웨이트통해 체력 강화


올 시즌 세이브왕을 꿈꾸고 있는 KIA의 한기주가 괌 파세오 구장에서 체력 강화를 위해 러닝을 하고 있다.

'세이브 왕을 향해 마구(魔球)를 던져라.'

KIA타이거즈의 특급 마무리 한기주가 올 시즌 40세이브 달성을 목표로 세이브왕에 도전한다.

괌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한기주는 "지난 시즌 25세이브에 그쳐 아쉬움이 많다. 올해는 꼭 40세이브에 도전하겠다"고 올 시즌 포부를 밝혔다.

한기주는 지난 시즌 25세이브를 기록하며 1999년 임창용이 34세이브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팀에서 20세이브 이상을 달성하는 수훈을 세웠지만 목표했던 40세이브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팀이 최하위의 수모를 당하면서 51승을 챙기는데 그쳐 사실상 마무리 자리는 휴업상태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올 시즌 선발진에 대한 믿음이 큰 만큼 한기주는 또 다시 40세이브를 목표로 세우고 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40세이브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마운드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는 삼성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지난 2006년 달성한 세이브는 47. 아시아 신기록이다. 지난해에도 오승환은 40개의 세이브로 1위 자리에 올랐었다.

한기주는 "사실 40세이브 달성이 많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표를 크게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이다.

지난해와는 다른 KIA의 상황도 한기주에게 힘을 실어준다. 고군분투 했던 윤석민에 메이저리거 서재응, 리마가 가세하면서 최강의 원-투-쓰리 펀치를 구축하면서 마무리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발데스와 최희섭도 수비와 타력에 지원사격을 나선다.

지난 시즌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승부로 구질이 읽혀 고전했던 한기주는 지난 마무리 훈련때부터 새로운 구질을 익히면서 40세이브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주 마운드에 올라야 하는 만큼 한기주는 체력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괌에서는 중장거리 러닝과 웨이트로 체중 관리를 하고, 31일부터는 미야자키로 옮겨 본격적인 피칭과 기술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KIA 마운드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줄 한기주는 "올 시즌에는 더욱더 완벽해 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지난해 부족한 부분을 전지훈련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내 팀과 팬들에게 기쁨을 안기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두통 "괜찮대요"

정밀검진 결과…"의학적 이상 없다"
두통 증세는 지속…추가 검사 계획

해외 전지훈련 도중 두통으로 갑작스럽게 귀국한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거포' 최희섭(29)의 몸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A는 23일 최희섭이 전날 구단 지정병원인 광주 한국병원과 최정섭 이비인후과 등에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단층촬영(CT), 뇌파검사 등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의학적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은 최희섭이 2003년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 시절 1루수로 나섰다가 수비 도중 머리 뒷부분을 다친 후유증일 가능성을 염두해 정밀검진을 벌였지만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검진을 맡은 한국병원 김윤모 신경외과 원장은 "최희섭 선수가 호소하는 증상이 메이저리그 시절 머리를 다친 뒤 나타나는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했지만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장은 "수면 장애, 스트레스, 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반응에 의한 신체적 증후군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희섭이 검진 이후에도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희섭은 "아직도 두통과 어지러운 증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쁘다"며 "구단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아 곧 팀 훈련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섭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상태가 호전되면 2군 훈련에 합류하고 31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시작할 전지훈련에 참가할 계획이다.

KIA 관계자는 "최희섭은 갑작스런 운동량 증가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파혼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두통 증세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희섭은 이달 초 괌 전지훈련을 떠났다 지난 19일부터 심각한 두통 증세를 보여 22일 오전 긴급 귀국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 9년만에 아스널 꺾다

칼링컵 결승행…이영표 풀타임 출전 '평점 6'

이영표(31)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런던 라이벌 아스널을 대파하고 칼링컵 결승에 올랐다.

토트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홈 구장인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아스널과 2007-2008 잉글랜드 칼링컵 준결승 2차전 '북런던 더비'에서 저메인 제나스, 로비 킨, 에런 레넌, 스티드 말브랑크의 연속골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5-1 완승을 거뒀다.

1차전 원정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토트넘은 1, 2차전 합계 6-2로 아스널을 돌려 세우고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승리를 챙긴 것은 1999년 11월 열린 1999-2000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후 9년, 22경기 만이다. 토트넘은 그 동안 아스널과 21차례 맞대결에서 9무12패를 기록 중이었다.

토트넘은 첼시-에버턴 전 승자와 다음달 24일 뉴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단판 승부로 대회 우승을 다툰다.

토트넘으로서는 1998-1999 시즌 우승 이후 10년 만에 네 번째 리그컵대회 정상 도전이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제나스의 중거리슛으로 기선을 제압한 토트넘은 전반 27분 상대 공격수 니클라스 벤트너의 헤딩 자책골이 터지며 점수 차를 벌렸다.

이영표는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구단 역사에 남을 만한 대승에 힘을 보탰다.

이영표는 20일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전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풀타임을 뛰며 팀 수비라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아스널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며 매끄러운 공수 연결로 팀 승리를 도운 이영표는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로부터 평점 6을 받았다.

FA컵 챔프 전남 터키 전지훈련 '출발'

지난해 FA컵 챔피언 전남 드래곤즈가 23일 우승 담금질을 위해 터키 안탈리아로 전지 훈련을 떠났다.

박항서 신임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4명, 선수 27명, 지원스태프 7명 등 총 38명은 지중해 연안의 안탈리아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2008년 AFC 챔피언스 8강 진출과 함께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전남은 전지훈련을 통해 새로 영입한 고기구, 정인환, 이싸빅, 슈바 정경호 등과 기존 선수와의 호흡을 맞춰 조직력을 높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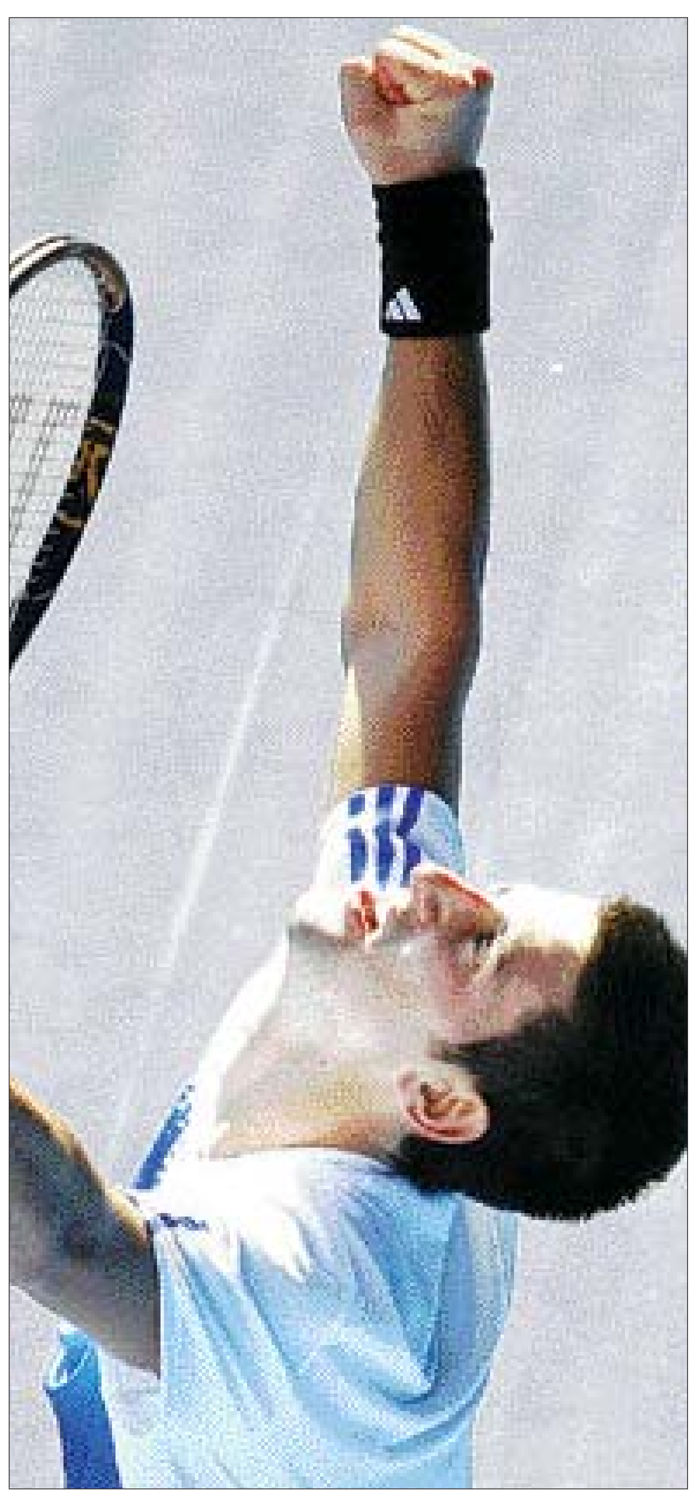
전남은 또 용광로같이 투지 넘치는 '용광로 축구'를 선보이기 위해 체력훈련도 강화할 예정이다. 잔류 선수는 손형선 2군 코치와 광양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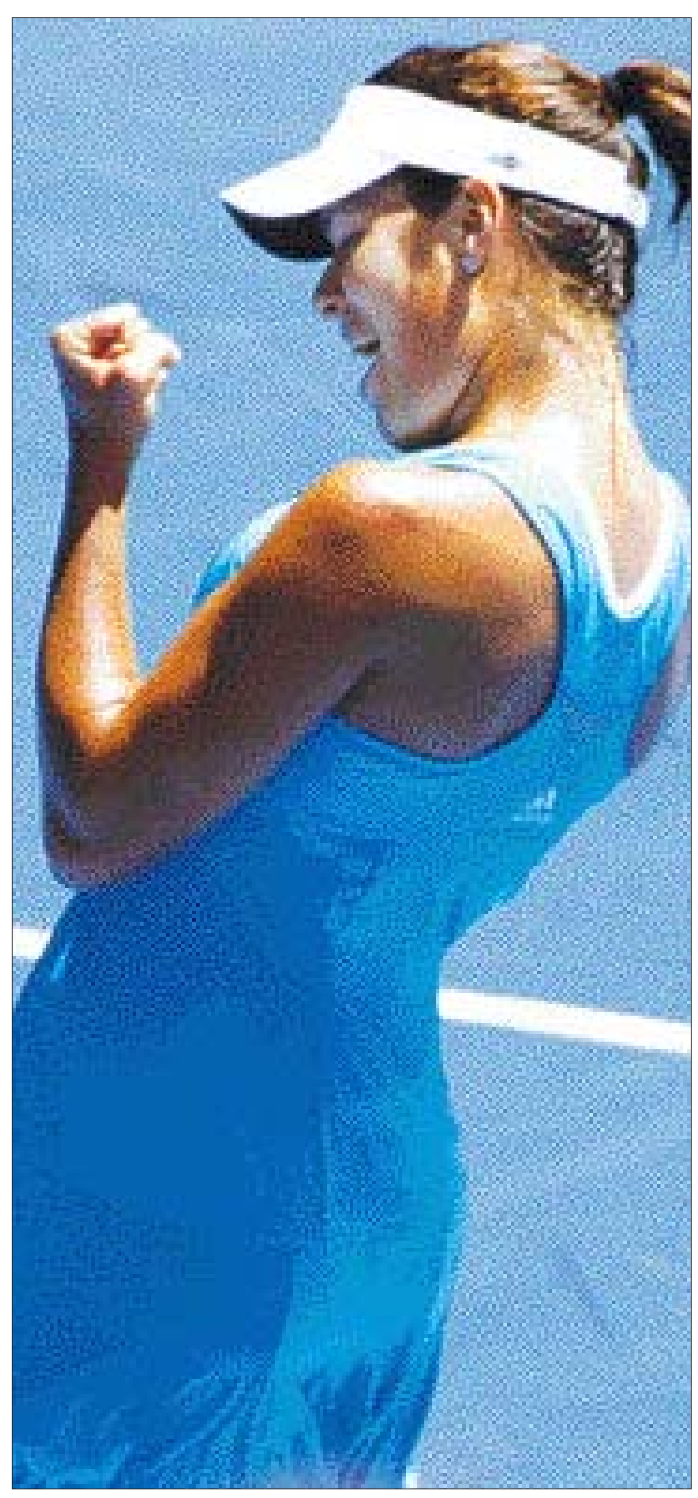
한편 전지훈련기간 중 박항서 감독이 러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스승' 거스 히딩크 감독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대표팀이 내달 1일부터 5~6일 동안 안탈리아에서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2월드컵 대표팀 감독과 코치로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주역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주오픈테니스 '세르비아 남매' 4강 환호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세르비아의 노바 조코비치(왼쪽)와 아나 이바노비치(오른쪽)가 준결승 진출이 확정된 후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8강에서 각각 스페인의 데이비드 페러와 미국의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었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2007년 MVP

대한골프협회 선정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랭킹 5위, 그리고 세계랭킹 7위까지 오른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대한골프협회가 선정하는 2007년 MVP에 뽑혔다.

대한골프협회는 언론사 골프담당 기자, 협회 경기위원, 상벌위원 등으로 구성된 MVP 선정 투표인단 69명 가운데 32명의 지지를 얻어 최경주가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경주는 지난 1998년과 1999년에 이어 통산 세번째 협회 MVP에 뽑혔다.

골프협회 MVP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1995년, 1996년, 1998년, 그리고 2001년에 받은 박세리(31)이며 최경주는 이번 수상으로 최다 수상 기록 경신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최우수 프로 선수상은 21표를 얻은 신지애(20·하이마트)가 받는다.

지난해 송암배, 익성배, 한국아마추어선수권대회 등 메이저급 아마추어 대회를 잇따라 제패했던 김영수(19·창원공고)는 최우수 아마추어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협회는 24일 서초구 반포동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시상식을 갖는다.

뷰익인비테이셔널 또 다른 관심

우즈 vs 최경주 관중몰이 경쟁

올해 처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우승 다툼을 벌이는 '탱크' 최경주가 뜻하지 않게 우즈와 인기 경쟁을 벌이게 됐다.

23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뷰익인비테이셔널 경기위원회가 밝힌 조 편성에 따르면 최경주는 필 미켈슨, 제프 매거트(이상 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미켈슨은 PGA 투어에서 관중 동원 능력은 우즈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슈퍼스타. 더구나 미켈슨은 대회가 열리는 토리파인스골프장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출신이라 다른 대회보다 갤러리가 더 많이 몰려들 전망이다.

미켈슨의 인기 덕에 최경주도 덩달아 구름 관중 속에서 경기를 펼치는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호흡기질환 탓에 사흘 동안 병석에 누워 '불참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던 미켈슨은 23일 "아주 좋아졌다"면서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경주는 우즈, 미켈슨, 그리고 비제이 싱(피지) 등 특급 선수들에 견줘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뽐내고 있고 샌디에이고가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아 최경주 응원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주와 미켈슨이 25일 오전 1시50분 북코스 10번홀에서 경기에 나서는 반면 우즈는 오전 2시 남코스 1번홀에서 티오프할 예정이라 경기장을 찾는 골프팬들은 두 곳으로 확연히 갈릴 것으로 대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적지않은 팬을 거느린 세계랭킹 4위 짐 퓨릭(미국)이 우즈와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돼 미켈슨-최경주와 관중동원 경쟁은 우열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만원)	골프장		시세(만원)
광주	3,450	송원콘도	실버	1,700
남광주	4,400		골드	1,900
승주	8,200		로얄	2,100

상담문의 (062)351-0095